

<1984>의 권력 관계와 특성 - ‘군림하는 권력(Power Over)’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과 202321365 이성희

<목차>

I. 서론

- I -1. 권력의 정의
- I -2. 권력의 속성

II. 본론

- II -2. 삼차원적 권력 - Steven Lukes
 - (1) Robert A. Dahl- 첫 번째 차원의 권력
 - (2) Peter Bachrach & Morton Baratz - 두 번째 차원의 권력
 - (3) Steven Lukes - 세 번째 차원의 권력
- II -1. 『1984』의 국가 체제
 - (1) INGSOC(영국사회주의)와 정권
 - (2) ‘오세아니아’의 정치 체제
- II -2. 『1984』에서의 권력 작용 분석
 - (1) ‘이중사고’와 ‘기록국’, 의제의 탈조직화
 - (2) ‘이분 증오’와 ‘골드스타인’, 만들어진 선호와 편견의 동원

III. 결론

I. 서론

자유의지를 빼앗긴 한 인간의 파괴 과정을 그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명작 디스토피아 소설로 손꼽히고 있다. 파시즘과 감시, 통제받는 삶에 대한 공포, 체제로부터의 억압으로 인간성을 잃어버린 주인공 ‘윈스턴’의 모습은 이 작품이 왜 현재까지도 명작으로 추앙받는지를 알게 해준다. 더불어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권력에 대한 묘사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과 맞물리면서 비인간성의 극치를 보여준다.

“권력은 타인을 괴롭힘으로써 행사할 수가 있지. 맞았네. 복종으로는 충분하지 않네. 괴롭히지 않고, 어떻게 권력자의 의사에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겠는가?”¹⁾

권력을 상징하는 폭력, 그리고 폭력을 통해 권력을 완성하는 내부당원 ‘오브라이언’은 위와 같은 묘사로 권력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는 『1984』가 불러오는 바로 그 공포, 즉 타인에 의한 정신적 지배와 예측, 그리고 자유의 상실을 일축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1984』를 관통하는 소재인 ‘권력’의 정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 본론에서는 권력을 설명하는 이론을 탐구하고, 소설 속 소재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행사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부에서는 소설이 주는 권력에 대한 통찰을 현재 사회의 권력에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I-1. 권력의 정의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권력이란 “타인 또는 조직단위의 행태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능력”²⁾을 의미한다. 이때 권력은 어떠한 힘의 작용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는 권력의 어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권력(Power)’이라는 용어의 어원인 라틴어의 Portere는 ‘할 수 있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³⁾ 이와 관련해 영국의 사상가 러셀은 권력을 ‘의도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힘(The capacity to bring about intended effects)’으로 정의하기도 했다.⁴⁾ Lukes의 경우 권력을 행위, 그리고 선호와 연결해 “A가 B의 선호에 반하는 방식으로 B에게 영향을 미칠 때 A가 B에게 권력을 행사한다”⁵⁾고 설명한다.

따라서 권력이란,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의도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역량’이며, 이때 ‘의도한 결과’란 ‘타인의 선호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I-2. 권력의 속성

1) 조지 오웰, 『1984』, 정희성 번역, 민음사, 2014, 373쪽.

2) “권력”, 네이버 지식백과, 접속일시 2024.06.15.,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5927&cid=42155&categoryId=42155>

3) John McCormick, Rod Hague, Martin Harrop, 『비교정부와 정치』, 김계동, 민병오, 서재권, 이유진 옮김, 제12판, 명인문화사, 2023, 18쪽.

4) John McCormick, Rod Hague, Martin Harrop, 위의 책, 18쪽에서 재인용.

5) Steven Lukes, *Power: A Radical View*, 2nd e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37쪽.

“I have defined the concept of power by saying that A exercises power over B when A affects B in a manner contrary to B’s interests.”

권력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는 권력의 정의뿐만 아니라 권력의 속성에 대한 설명에서도 이루어진다. 권력의 속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권력의 속성은 군림하는 것(Power over)이라는 관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권력의 속성이 합의를 이끄는 것(Power to)이라는 관점이다.

군림하는 권력(Power over)은 권력이라는 역량이 통제에 있다고 보고, 권력의 본질이 갈등을 억압하고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관철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지향하는 권력(Power to)은 권력이 '무엇에 이르게 하는 힘'이라고 간주하며, 타인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권력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권력에 대한 분석은 아직 '군림하는 권력'에 머물고 있다⁶⁾. 따라서 여기에서는 권력의 속성을 '군림하는 권력'으로 보고, 영국의 사회학자인 루크스(Lukes)의 '권력의 세 가지 차원' 이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권력을 측정하거나 행위자 간 권력 관계, 즉 '누가 더 권력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II. 본론

위에서 서술한 권력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권력의 세 가지 차원' 이론에 대해 논할 것이다. 이는 권력의 측정, 그리고 행위자 간의 권력 우열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⁷⁾.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1984> 속 'INGSOC'는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먼저 '권력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1984』 속 '오세아니아'의 정치 체제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I -2. 삼차원적 권력 - Steven Lukes

(1) Robert A. Dahl - 첫 번째 차원의 권력

Dahl은 다원주의에 기반하여 "권력은 행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구의 견해가 우세한지 구분함으로써 판단되어야 한다"⁸⁾고 설명한다. Lukes는 Dahl의 '누가 지배하는가'를 측정하는 중심적인 방법은 행위자들의 선호 충돌 시 어떠한 선호가 더 우세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Dahl은 위의 '결정'을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성공과 실패로 구분해, 성공 횟수가 가장 많은 참가자를 가장 권력을 많이 차지한 사람으로 간주함으로써 권력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따라서 Dahl은 "B가 하지 않을 무언가를 그가 하게 만드는 수준으로 A는 B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⁹⁾고 설명하며 권력을 개념화했다. 한편 Lukes는 이에 대해 "다원주의자들은 수반하는 실제적이고 관찰 가능한 갈등과 같은 핵심 또는 중요 사건 전반의 의사 결정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며 권력 분배의 실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 치명적이며, 권력 의지의 행사 행위를 보여주는 것에 실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¹⁰⁾ 즉, Dahl의 주장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권력 관계를 조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6) John McCormick , Rod Hague , Martin Harrop, 위의 책, 19쪽.

7) John McCormick , Rod Hague , Martin Harrop, 위의 책, 19쪽.

8) John McCormick , Rod Hague , Martin Harrop, 위의 책, 19쪽.

9) Steven Lukes, 위의 책, 16쪽.

10) Steven Lukes, 위의 책, 19쪽.

(2) Peter Bachrach & Morton Baratz - 두 번째 차원의 권력

엘리트즘(elitism)에 기반하여, Bachrach와 Baratz는 권력은 A가 B에게 영향을 끼치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력은 A가 그의 힘을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무해한 이슈에만 공공의 숙고에 정치적 과정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가치와 관습을 창조하거나 강화할 때 행사된다고 이야기한다¹¹⁾. 따라서, 이는 'A가 자신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쟁점이 공공의 의제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선호의 표현을 막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Schattschneider의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 이론을 가져왔다. 여기서 '편견의 동원'이란, 모든 정치 조직은 특정한 갈등을 선호하게 하고, 다른 것들은 억압하게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특정한 이슈가 배제되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더불어 Bachrach와 Baratz는 권력이 이러한 '비결정'을 작동 기제로 하므로 실증적인 측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Dahl의 의견을 반박한다.

(3) Steven Lukes - 세 번째 차원의 권력

Lukes는 "A가 B의 선호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B에게 영향을 미칠 때, A가 B에서 권력을 행사한다"¹²⁾고 권력 행사의 개념을 제시한다¹³⁾. 그리고 Lukes는 이 개념의 핵심인 선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제 '선호'의 개념은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평가의 개념이다(Balbus 1971, Connolly 1972) : 만약 내가 어떤 것이 당신의 선호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이 일단 보기에 그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만약 내가 '정책 x가 A의 선호에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일단 보기에 그 정책을 위한 타당한 이유로 여겨진다. "¹⁴⁾

이를 통해 Lukes는 선호의 형성이 권력 작용의 평가 척도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되는 개인들의 선호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수 있음을 역설한다. 즉, 선호의 형성이 곧 권력 행사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결정에 있어 선호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혹은 타인의 영향력 행사로 만들어진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Lukes는 이러한 지점을 파고들어, 권력의 행사를 조작된 합의를 통해 의제를 조작하고, 결과적으로는 분쟁을 차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¹⁵⁾

II -1. 『1984』의 국가 체제

(1) INGSOC(영국 사회주의)와 정권

'정권'이란, "일련의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의사 결정 절차를 기반으로 하는, 예컨대 민주주의 정권 또는 권위주의 정권을 포함하는 어떤 정치적 유형"¹⁶⁾으로 정의할 수 있다. 『1984』

11) Steven Lukes, 위의 책, 20쪽에서 재인용.

12) Steven Lukes, 위의 책, 25쪽.

13) Steven Lukes, 위의 책, 37쪽.

14) Steven Lukes, 위의 책, 37쪽에서 재인용.

15) John McCormick, Rod Hague, Martin Harrop, 위의 책, 20쪽

16) John McCormick, Rod Hague, Martin Harrop, 위의 책, 22쪽.

에서 INGSOC(영국사회주의)는 ‘오세아니아’의 정권을 잡은 단일 정당이다. 주인공 ‘윈스턴’의 회고 내용 중 ‘영사’라는 신어가 1960년대 이전에는 없었었다는 서술에 따르면, 1950년대 경 내전에서의 영사의 승리와 함께 본격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¹⁷⁾

‘INGSOC’는 사회주의를 앞세우는 전체주의 성격의 정당이지만, 사실상 파시즘에 기반한다. 2부의 후반부에서 ‘윈스턴’이 읽는 ‘그 책’에 내용에 근거하면, ‘INGSOC’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실현이 아닌 전쟁의 현상 유지와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의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900년경 이후에 출현한 각양각색의 사회주의 이론은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겠다는 애초의 목표를 노골적으로 포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중엽에 나타난 새로운 운동인 오세아니아의 ‘영사’, 유라시아의 ‘신 불세비즘’, 이스트아시아의 ‘죽음 숭배’ 등을 통해 예측과 불평등을 영원히 지속하려는 의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¹⁸⁾

따라서 ‘INGSOC’의 본질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 체제 아래 전쟁의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파시즘 정당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일당독재를 수반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군림하는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권력의 세 가지 차원’을 적용하기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오세아니아’의 정치 체제

『1984』의 현재 시점에서 ‘오세아니아’는 INGSOC(영국사회주의)에 의한 과두 집단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다.¹⁹⁾ INGSOC는 지도자로서 ‘빅 브라더’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상 ‘오세아니아’의 정치 체제는 ‘오브라이언’으로 대표되는 소수의 내부당원, 즉 정치적 엘리트층을 권력의 주체로 하는 과두제이자, 일당 독재체제라고 성명할 수 있다.

소설의 첫 대목에서는 외부당원인 ‘윈스턴’이 근무하는 ‘진리부’ 뿐만 아니라 ‘평화부’, ‘애정부’, ‘풍요부’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들은 각각 보도·연예·교육·예술, 전쟁, 법·질서,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들로, 국가 운영과 함께 ‘오세아니아’의 국민을 억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진리부의 경우 언론 통제와 검열을 통해 사람들의 언어와 사상을 통제하고, 애정부의 경우 당의 사상에 어긋나는 개인을 고문하는 등 폭력을 통해 반동을 억제한다.

‘오세아니아’ 정치 체제에서 두드러지는 특이점은 바로 ‘내부당원’과 ‘외부당원’ 사이의 간극이다. 두 부류의 당원 모두 식자층에 해당하지만, ‘외부당원’은 사상의 자유는 물론, ‘내부당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본권에 대한 제한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는 ‘오세아니아’의 정치 체제가 4%에 해당하는 소수의 정치적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었으며, 통제에 기반한 권력 행사의 주체가 ‘내부당원’에게 있음을 시사한다.

II-2. 『1984』에서의 권력 작용 분석

17) 조지 오웰, 위의 책, 55쪽.

18) 조지 오웰, 위의 책, 284쪽.

19) 강준수, “『1984년』을 통해 본 전체주의와 가상공간의 집단주의”. 스토리앤이미지텔링, 15, 2018, 18쪽에서 간접인용. 작품 내에서는 ‘빅 브라더’가 오세아니아의 지도자로 나타나지만, 작품 내에서 그가 실존하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1) ‘이중사고’와 ‘기록국’, 의제의 탈조직화

‘윈스턴’은 1부에서 ‘이중사고’와 관련한 고뇌에 빠진다. 자신의 기억과는 날조된 현재 시점의 역사 사이에서 오는 인지 부조화 때문이다. ‘이중사고’란, 다른 말로는 ‘현실 제어’라고도 불리며, 현재 밝혀진 진실이 진리이며, 그와 다른 것들은 모두 비진리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당에서는 오세아니아가 유라시아와 동맹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윈스턴 스미스는 오세아니아가 사 년 전에 유라시아와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이것이 당의 슬로건이다. 그러나 과거는 본질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에도 여태 그런 적이 없다. 지금 진실한 것은 영원히 진실하다. 이는 지극히 단순한 이치이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기억을 끊임없이 말살시키는 것뿐이다.”²⁰⁾

이러한 이중사고를 만들어내는 곳은 ‘진리부’의 ‘기록국’으로, ‘윈스턴’의 일터이다. ‘윈스턴’은 당의 강령에 따라 과거의 기록들을 수정하고 재편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 조작 행위는 상당히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런데 직원이 쉰 명쯤 되는 이 사무실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기록국의 일개 분과에 불과했다. 사무실의 상하좌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서가 있고, 그에 따라 갖가지 부문에 종사하는 여러 부류의 노동자들이 있다. … 또한 어디에 있는지도, 누구인지도 알 수 없지만 모든 작업을 통솔하고 과거의 일이나 사건 중에서 그대로 두어야 할 것과 위조해야 할 것, 없애야 할 것 등을 구별하여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지도급 인물들도 있었다.”²¹⁾

위의 문단에서는 ‘기록국’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관련한 정책 결정자들을 언급하면서 날조 행위와 ‘이중사고’가 ‘내부당원’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내부당원’들은 정치적 의제를 장악할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에 대한 도전을 억압하기 위해 ‘제9차 3개년 계획’이나 ‘초콜릿 배급량’에 대한 기록들을 위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사고’와 관련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빅 브라더’가 ‘오세아니아’의 언론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권위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빅 브라더’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며, 날조 행위 또한 당의 ‘내부당원’이 주관하고 있음을 내포한다. 다음은 ‘빅 브라더’의 연설과 관련된 소설의 장면들이다.

“아마 지금 열두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며 빅 브라더의 연설문을 고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내부당의 지도급 인물들이 그중에서 적당한 원고를 골라 재편집한 뒤, 복잡한 참조 과정을 거쳐서 영구 문서에 기록할 것이다.”²²⁾

“당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증거를 부인하라고 강요했다. 이것이 당의 가장 궁극적이

20) 조지 오웰, 위의 책, 53쪽.

21) 조지 오웰, 위의 책, 62-63쪽.

22) 조지 오웰, 위의 책, 66쪽.

고도 핵심적인 명령이었다.”²³⁾

위의 장면들에서 ‘빅 브라더’의 연설 내용은 ‘기록국’의 직원들에 의해 수정되고, 최종적으로는 내부 당의 지도급 인물들에 의해 기록된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한 그 누구도 ‘빅 브라더’가 한 연설의 진위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단지 증거의 부인에만 집착하는 당의 명령을 수행할 뿐, ‘빅 브라더’를 정치적 지도자로서 존중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수정 작업이 ‘빅 브라더’의 권위를 높임과 동시에 당이 ‘빅 브라더’의 이름을 빌린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이차원적 권력’의 권력 구조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2) ‘이 분 증오’와 ‘골드스타인’, 만들어진 선호와 편견의 동원

『1984』 속 세계관에서 가장 디스토피아적인 것 중 하나로 ‘이 분 증오(2 minutes Hate)’를 꼽을 수 있다. 사람들은 커다란 텔레스크린 속 나타나는 ‘빅 브라더’를 찬양하면서, 그에 상대되는 ‘골드스타인’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며 반(反)체제적인 것들을 혐오하도록 조종받는다.

이때 텔레스크린에 나타나는 ‘골드스타인’에 대한 묘사는 텔레스크린 속 ‘골드스타인’이 당에 의해 만들어진 인물이 아닌지를 의심하게 한다. 다음은 해당 묘사와 관련된 장면이다.

“그의 독설은 당의 웅변가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모방한 빠른 다음절(多音節)의 연설이었다. 그는 심지어 당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신어를 섞어가며 연설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골드스타인의 허울 좋은 말 속에 혹시라도 일말의 진심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을까 봐 스크린에서는 그의 머리 뒤쪽으로 유라시아 군대의 행렬을 끊임없이 펼쳐 보이고 있었다.”²⁴⁾

여기서의 ‘골드스타인’은 당의 신조를 반박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이 요구하는 신어와 당의 웅변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연설 수법을 사용한다. 이는 ‘이분 증오’에서의 ‘골드스타인’이 사람들로 하여금 반체제적인 사상을 혐오하고 당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도록 만들기 위해 꾸며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

INGSOC의 이러한 행위는 당의 일차적인 목표가 사람들의 내면에 자신들이 원하는 선호를 이식시킴으로써 당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당의 이념과 선호에 완전히 일치하는, 즉 ‘개조된 선호를 가진 맹목적 인간’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Lukes의 ‘삼차원적 권력’은 권력의 작용이 위에서 언급한 ‘개조된 선호’를 만들어냈다고 본다. 게다가 이 ‘개조된 선호’는 사람들이 반동 행위를 감시하게 만들어 당의 의견과 주장에 반발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억제하는 연쇄 효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연쇄 효과에는 Bachrach와 Baratz가 주장한 ‘이차원적 권력’의 속성이 나타나 있다.

“잠시 정신을 차린 사이에 윈스턴은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향을 지르며 발뒤꿈치로 의자의 가로대를 마구 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분 증오’가 끔찍한 것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저절로 거기에 휘말려들기 때문에 끔찍한 것이다. 일단 휘말려들

23) 조지 오웰, 위의 책, 114쪽.

24) 조지 오웰, 위의 책, 24쪽.

면 삼십 초도 안 되어 어떤 억제도 소용없게 된다.”²⁵⁾

‘골드스타인’에 대한 혐오는 위의 장면에서 볼 수 있는 묘사와 같이 군중심리를 타고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혐오의 이면에는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측, 무지는 힘’이라는 당의 강령이 자리 잡는다. 이는 곧 INGSOC가 사람들에게 ‘골드스타인’이라는 갈등 요소를 만들어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즉 당의 가치관과 신념을 이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II. 결론

지금까지 군림하는 권력에 기반한 ‘삼차원적 권력’ 이론에 따라 『1984』 속 정치 체제에서 작용하는 권력을 분석해보았다. 『1984』에 등장하는 소재나 ‘원스톤’의 심리 묘사 등 다양한 장면에서 권력의 작용을 볼 수 있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이중사고’, ‘기록국’, ‘골드스타인’, ‘이분 증오’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권력의 상징물로서, 작 중에서 주인공 ‘원스톤’의 사고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Dahl의 ‘일차원적 권력’을 적용해볼 만한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이는 Dahl의 이론이 다원주의에 기반해있고, 또 작 중에서 선호 갈등과 관련된 권력의 행사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1984』의 INGSOC가 파시즘 정권을 이루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1984』가 지금까지도 디스토피아 명작 소설의 반열에 있는 것은, 억압과 폭력을 수반하는 권력과 그에 의한 통제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군림하는 권력’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작용하고 있으며, 갈등과 폭력이 여전히 우리의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포퓰리즘, 대중의,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정치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쥐여주며 호소한다. 그러나 이 권력이 진실로 대중의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 이후 체제에 의한 폭력은 사라졌지만, 사회에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갈등은 더욱 심화해가고 있으며, 이는 대중에 대한 대중의 폭력으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 각종 정책은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 편승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해가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 현상과 긴장은 계속해서 부풀어가고 있다.

『1984』에 나타난 정치가 엘리트에 의한 과두정치라면, 현재의 정치는 엘리트와 인민(대중)의 갈등에 의한 포퓰리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두 집단의 적대 관계 때문에 형성되는 포퓰리즘은 『1984』의 그것처럼 선동과 날조의 장으로 변질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정치를 집어삼킨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합리적 사고와 신중함을 지녀야 한다. 권력의 정의와 그 작용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정치의 형태 속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25) 조지오웰, 위의 책, 26쪽.

참고문헌

<단행본>

조지 오웰, 『1984』, 정희성 번역, 민음사, 2014.

John McCormick , Rod Hague , Martin Harrop, 『비교정부와 정치』, 김계동 , 민병오 , 서재권 , 이유진 번역, 제12판, 명인문화사, 2023.

Steven Lukes, *Power: A Radical View*, 2nd e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논문>

강준수, “『1984년』을 통해 본 전체주의와 가상공간의 집단주의”. 스토리앤이미지텔링, 15, 2018, 13-37.